

김정일 악병...北 후계문제 수면위로

친인척 주도적 역할...군부 개입 '촉각'

金, 국정운영 불능 상태는 아닌 듯...북·미 핵협상 악영향 우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위독할 정도는 아니나 쓰러질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거의 확실한 쪽으로 정부 관계기관들의 정보 평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내부 동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김 위원장이 측근들에게도 거론하는 것을 금했던 후계 문제가 북한 내부에서 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로 조기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현재 국정 운영능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세 아들과 당 및 군부에 있는 각각의 지원세력 그리고 사실상 김 위원장의 네번째 부인인 김옥 등을 중심으로 한 권력투쟁 가능성, 비상 국정운영 형태, 핵무기 관련권 등의 행태가 북한 체제는 물론 한반도 안팎의 정세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국정 운영능력 상태=정부는 현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병에 이상이 있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9일 그러나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신체 상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부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최근 뇌졸중 수술을 받았는데 병세가 경미해 생명이 위독할 정도는 아니며, 애초 9·9절 행사에도 오후쯤 참석하려 했지만 유유증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김 위원장이 국정운영 불능 상태는 아니라는 뜻으로 보인다.

△후계구도와 권력투쟁 가능성=김 위원장의 병세가 어떻게 이변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후계 문제가 즉각적인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북한이 당초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목표 시한으로 설정한 2012년경 김 위원장의 후계 지명이 이뤄

질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많았으나, 이제는 후계 문제의 조기 가시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로 김 위원장의 친인척과 군부, 김 위원장의 네번째 부인인 김옥 등이 꼽힌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김 위원장 건강 이상 시 애드민 김 위원장 아들들을 비롯해 김경애, 장성택 등 친인척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비상시엔 우리의 비상계엄과 유사한 형태로 군이 전면에서 위기관리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비상시 국정운영 형태=김 위원장의 건강이 더 악화해 국정운영이 비상 상황이 될 경우 "국방 위원회가 비상운영되면서 집단지도체제가 가동될 것"이라고 조성렬 박사는 내다보고 "그 경우 국방위 내에서 권력다툼이 이뤄지겠지만 폭력적인 상태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주 실장도 "현재의 국방위는 김 위원장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돼 있지만 위원들의 역할은 미미하고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김 위원장 유고시 국방위보다 당 중앙위 비서국을 중심으로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핵문제=백승주 실장은 김 위원장 유고시 북한은 핵을 갖고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것이라며 "그만큼 북미간 핵협상도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등 서방 정부와 전문가들이 북한에 위기 발생 시 가장 염려하고 있는 핵무기,물자의 관리 문제로 김 위원장의 와병설을 계기로 새삼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이 어떤 수준인지조차 아직 불투명해 뚜렷한 방향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핵무기 문제의 경우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김 위원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것의 최종 관리권 행태가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지만, 현재로서는 특정한 방향으로 예상보다는 우려만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한 한국정부 관리가 밝혔으나 그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분석가들이 말했다. 사진은 북한 정권수립 60주년 군사퍼레이드에 참가한 북한 노동적위대원들. /연합뉴스



우주 탄생 대폭발 재현 첫 양성자 빔 발사 성공 유럽입자물리연구소

약 139억년전 우주 탄생의 순간을 재현하기 위한 실험이 10일 개시됐다.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는 이날 오전 9시 39분(한국시간 오후 4시39분)께 제네바와 프랑스 국경지대 지하 100m, 길이 27km의 원형터널에 설치된 대형강입자충돌기(LHC)에 첫 수소 양성자 빔을 발사했다.

린 에벤스 LHC 프로젝트 책임자는 "첫 수소 양성자 빔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말했다. 첫 수소 양성자 빔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과학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발사된 첫 수소 양성자 빔은 원형터널을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며, 원형터널의 4곳에 설치된 검출실에서 확인된 뒤인 다음 날 중순이후가 될 것인데 수소 양성자 빔을 발사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한다.

이후 두 개의 양성자 빔을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발사해 충돌시키는 작업은 수소 양성자 빔이 안정된 것을 확인한 뒤인 다음 날 중순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충돌 실험은 연말께나 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본격적인 충돌 실험에 들어간다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발사된 두 개의 수소 양성자 빔은 원형터널의 LHC 내에 만들어진 두 가닥의 궤도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강력한 초전도 자석들에 의해 구부러져 두 궤도의 교차 지점에 마련된 알리스(ALICE)와 아틀라스(ATLAS), CMS, LHCb 등 4개의 대형 검출실에서 충돌하게 된다.

이번 실험의 목표는 '신(神)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Higgs Boson·반물질)를 찾고,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특히 우주의 모든 입자들의 질량을 결정하는 이 힉스 입자를 발견하게 되면 질량의 기원을 알게 돼 물리학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 업무 2인자 장성택이 대신" 병간호는 네번째 부인 김옥이 맡아

"김정일 사망 임박하지 않아"

뉴욕타임스 보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짐에 따라 발생한 김 위원장의 업무공백은 당장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 위원장의 사실상 네번째 부인인 김옥 국방위원회 과장이 메우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주요 조직이나 기관에 김 위원장에게 병렬로 직할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사화로서, 한국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처럼 최고 지도자의 유고나 병고 때 공식 서열순으로 업무를 대신하는 체계가 아니다.

서울 29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주요 통치기구인 국방위 제1부위원장, 혹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통치 기구의 공식 실세들이 대신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김 위원장이 가장 신임하고 권력층이 공감하는 인물에 무게가 실린다.

한 고위층 탈북자는 10일 "장성택 부장은 주로 국정운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보좌하고 김옥은 김 위원장의 병간호를 하면서 국정을 보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장 부장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다가 2004년 초 '권력욕에 의한 분파쟁쟁'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벌을 받기도 했지만 2년여만에 노동당 근로단체 및 수도건설부 제1

부부장으로 복귀한 데 이어 작년 10월 신설된 당 행정부장으로 임명되면서 권력의 중심에, 실질적인 2인자로 부활했다. 더욱이 장 부장은 북한의 고위층 이자도 부활했다. 더욱이 장 부장은 북한의 고위층 이자도 부활했다. 더욱이 장 부장은 북한의 고위층 이자도 부활했다.

오랫동안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일인자 체제가 유지돼온 만큼 북한 고위층은 김 위원장과 가족적 연관이 없는 인물이 김 위원장을 대신하는 데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고위층 탈북자들은 지적했다.

오랫동안 북한 권력의 2인자로 신임을 받아왔을 뿐더러 김 위원장의 친인척인 장 부장 외에는 북한 고위층이 김 위원장을 대신할 인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미국 정보 당국자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 "그의 죽음이 임박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권력이동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는 없다"며 이같이 밝히면서도, 미 정보당국이 김 위원장의 완해를 기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미국의 폭스뉴스는 인터넷판에서 서방 관리들의 말을 인용, 김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뇌졸중 증세를 보여 직무를 볼 수 없게 됐거나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branch locations, and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featur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당부동산. Includes contact info and detailed listings for various properties like apartments and hous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Includes contact info and listings for various real estate services.